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the SNS Addiction Proneness in University Student: Medi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정구철, 문종호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Jong-Ho Moon(styraels@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대학생 252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 및 SNS중독경향성을 조사하였으며, 매개효과는 Preacher와 Hayes(2008)의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부스트랩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 및 SNS중독경향성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와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에 대한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내현적 자기애 | 분노표현 | SNS중독경향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It was conducted to measure anger expression,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from 252(132 male, 120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was analyzed through Preacher and Hayes' SPSS Macro and bootstrapping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 among covert narcissism, anger express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Second, anger-out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Third, anger-out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covert narcissism and disturbance of adaptive life and control failure, preoccupation and tolerance, avoidance of negative emotions. Forth, anger-in and anger-control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covert narcissism and virtual life orientation and withdraw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explore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covert narcissism and SNS addiction proneness. In addition, this implic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 keyword : | Covert Narcissism | Anger Expression | SNS Addiction Proneness |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5년 04월 21일

수정일자 : 2015년 05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6월 03일

교신저자 : 문종호, e-mail : styraels@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확대는 개인 간 소통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까지도 매개하며 우리 삶 속에 어느새 깊숙이 들어와 있다. 가장 대표적인 SNS로 거론되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의 경우 창립 10주년 만에 전 세계에서 12억명 이상의 가입자를 모집하였고[1], 기타 SNS 사용자까지 고려한다면 인터넷 혹은 모바일인터넷이 가능한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대에 들어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된 우리나라 역시 예외적이지 않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중 검색서비스(96.8%) 다음으로 높은 이용률이 SNS의 사용(50.4%)으로 나타났으며, SNS이용자 중 87.7%가 주 1회 이상 SNS를 사용하였고 하루에 수차례 이상 접속하는 경우도 37.2%나 되었다[2]. SNS이용률의 증가로 인해 개인 간 정보 전달이 용이해졌으며, 기업에서도 마케팅 전략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3][4]. 이는 SNS의 폭넓은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적극 활용한 대목이다. 그러나 SNS는 다양한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SNS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학업성취도의 저하[5], 실직과 같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6]. 이처럼 SNS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긍정적인 면과 함께 SNS중독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드러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SNS중독경향성에 대하여 소외감, 외로움, 감각추구성향이나 내현적 자기애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7][8]. SNS의 사용은 사회적 외로움과 소외감 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자기애적 성향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면 중독의 특성인 몰입이나 강박적 사용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자기애적 성향은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과도한 자기애적 성향은 자신에 대한 과장된 지각, 아름다움 및 권력에 대한 공상, 과도한 찬사 요구 등의 특성을 보이게 되며 성격장애의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9].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은 자신의 글에 대해 타인들이 긍정적 호감을 표시할 수 있고, 찬사의 댓글을 달 수 있는 SNS의 특성을 고려할 때, SNS중독경향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에서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SNS 중독과 더욱 강하게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적 변인인 자기애적 성향 중 내현적 자기애를 SNS중독경향성의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애는 또한 자신을 억압하려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적절한 자기주장이나 분노표현이 필요한 시기에 억제의 기제를 자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예측변인으로써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 양식이 제기되기도 한다[10].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 경우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제기될 경우 좌절과 분노를 쉽게 느낄 수 있다[11].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분노를 보다 빈번하게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 이처럼 분노에 대한 부적절한 억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요구하게 되고,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고려하면 SNS는 분노표현의 적절한 창구가 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으로 인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분노표현은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분노조절의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며, 양가감정이 경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여러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여러 양식이 서로 다른 매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 SNS중독경향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SNS중독경향성

SNS중독은 독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보다는 인터넷 중독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5]. Young(1999)은 인터넷 중독의 특성을 컴퓨터 중독, 정보과부화, 충동적 이용, 사이버 섹스 중독, 사이버 관계 중독의 5가지로 분류했으며, 그 중 사이버 관계 중독은 사이버 상의 관계에 매우 집착하고,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시간을 보내는 특징을 보인다[12].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SNS의 특징은 인터넷 중독의 유형 중 사이버 관계 중독의 특징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SNS 중독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합의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며, SNS중독에 대한 진단기준 역시 공통된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과도한 SNS의 사용은 SNS에 대한 강박적 사용이 나타나고, 점차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SNS과다사용자들은 SNS에 접속하지 못할 경우 불안을 경험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중독의 특성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SNS중독경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SNS중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5][8].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

로움, 우울, 대인관계문제 등을 SNS중독경향성의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13][14], 박미향, 김정숙, 함경애(2014)는 성격의 5요인 중 신경증은 SNS중독경향성의 유의한 예측변인이라고 보고하기도 하였다[15]. 이처럼 SNS의 과다사용에 대해 SNS중독경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SNS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개념으로 SNS중독경향성을 사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내현적 자기애

자기애적 성향은 자신의 과장된 지각과 웅대성 등을 겉으로 드러내는가의 여부에 따라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구분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의 웅대성과 자기과장 등의 특성을 갖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자신을 억압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우울 및 불안과 더욱 관련이 깊다[16]. 내현적 자기애는 외부의 평가에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비판과 부정적 관심에 불편함을 느끼며 굴욕감과 수치심까지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8]. 선행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19][20], 이는 내현적 자기애 경향의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불편함, 수치심 등을 해소하고자 가상세계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애는 SNS중독경향성의 예측변인으로도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과민 취약성, 소심함, 자신감 부족과 같은 신경증적 요소와의 관련성도 제시되고 있다[8][21]. 자신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외부의 평가와 같은 타인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선호도의 표현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해 높은 관심이 발생하는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SNS중독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3. 분노표현양식

분노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자주 접하는 정서이다[22]. 이러한 분노표현의 양식으로 Spielberg, Krasner와 Solomon(1988)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분노조절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23], 그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분노표출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24], 편집적인 성향과 타인 비난, 보복과도 관련이 깊다[25]. 분노억제는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26]. 분노는 그 표현양식에 따라 대인관계나 행복지수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분노조절의 양식을 사용하는 집단일수록 높은 행복감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반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을 사용할 경우 행복감의 감소와 부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27].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억제와 높은 상관을 갖고 있으면서 분노표출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보고 한다[10]. 즉,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서로 상반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적인 심리적 변인에는 동시에 작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중독을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연구되어 알코올중독,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등 여러 중독의 예측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8-30]. 이는 분노표현양식에 따라서 나타나는 중독행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심리적 변인들과 중독 간의 관계 사이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다양한 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7개의 대학교에서 2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5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을 하였고, 설문지의 표지에도 기술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응답하는 중간에라도 응답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132명(52.4%)이고 여자는 120명(47.6%)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1.6

세(SD=2.3)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45명(17.9%), 2학년 46명(18.3%), 3학년 99명(39.3%), 4학년 55명(21.8%), 5학년 7명(2.8%)이었고, 전공별로는 인문계열 86명(35.4%), 자연계열 98명(40.3%), 예체능계열 59명(24.3%)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종교가 없는 학생이 139명(55.8%), 기독교 68명(27.3%), 천주교 27명(10.8%), 불교 15명(6.0%)이었다.

2. 연구 도구

2.1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토대로 하여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4][16][31].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하위요인은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 및 자기중심성'(9문항), '목표불안정성'(9문항), '과민 및 취약성'(10문항), '소심 및 자신감 부족'(8문항)의 총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은 타인에게 주목받고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항상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하며, 착취 및 자기중심성은 대인관계에서의 착취성과 동시에 특권의식, 자기중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목표불안정성은 정체성과 목표설정이 불확실한 것이며, 과민 및 취약성은 평가에 민감하며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경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심 및 자신감 부족은 내향적이며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2.2 분노표현양식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를 이장호, 한덕웅, 전경구(1998)가 한국판으로 변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STAXI-K)를 사용하였다[23][32].

STAXI-K 척도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표현양식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양식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분노표현양식은 총 24문항으로 분노표출(8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조절(8문항)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표출은 분노를 타인에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분노억제는 분노를 자기내부로 돌려 억제하는 것을 뜻한다. 분노조절은 분노를 진정시키며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표현양식의 측정은 선행 연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원 도구와 동일한 Likert식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였고, 각 요인별로 총합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분노표출 .79, 분노억제 .79, 분노조절 .78이었다.

2.3 SNS중독경향성

SNS중독경향성은 정소영, 김종남(2014)이 개발한 대학생용 SNS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16].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7문항), '몰입 및 내성'(7문항), '부정정서의 회피'(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5문항)의 4개 하위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는 SNS 사용통제가 실패할 경우 실생활의 흥미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며, 몰입 및 내성은 SNS 사용에 많은 시간과 생각을 보내는 동시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정서의 회피는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경우를 뜻하며,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은 SNS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하는 경향이 높을 경우 SNS 사용이 불가능할 때 불쾌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측정은 개발당시와 마찬가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연구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양식,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와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는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시한 SPSS Macro 명령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33],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 결과의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내현적 자기애, 분노표현 및 SNS중독경향성간의 상관관계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 및 SNS중독경향성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내현적 자기애는 분노표출과는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25, p<.001$), 분노억제($r=.84, p<.001$) 및 분노조절($r=.78, p<.001$)과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SNS중독경향성의 경우 내현적 자기애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36, p<.001$), 분노표출($r=.30, p<.001$), 분노억제($r=.31, p<.001$) 및 분노조절($r=.30, p<.001$)과는 보통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는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변수들의 정규성 가정을 점검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 값을 분석한 결과 왜도는 $-.15 \sim .30$ 이었고, 첨도는 $-.81 \sim .64$ 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는 Preacher와 Hayes(2008)의 SPSS Macro 명령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33],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스트

표 1.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 및 SNS중독경향성 간의 상관관계행렬

(N=252)

변인	(1)	(1-1)	(1-2)	(1-3)	(1-4)	(1-5)	(2-1)	(2-2)	(2-3)	(3)	(3-1)	(3-2)	(3-3)	(3-4)
(1)내현적 자기애														
(1-1)목표불안정	.74***													
(1-2)안정욕구 및 거대자기환상	.67***	.29***												
(1-3)착취 및 자기중심성	.65***	.34***	.41***											
(1-4)과민 및 취약성	.86***	.52***	.49***	.41***										
(1-5)소심 및 자신감부족	.78***	.61***	.29***	.30***	.71***									
(2)분노표현														
(2-1)분노표출	.25***	.17**	.15*	.28***	.25***	.07								
(2-2)분노억제	.84***	.59***	.66***	.59***	.70***	.55***	.28***							
(2-3)분노조절	.78***	.53***	.60***	.41***	.68***	.66***	.15*	.64**						
(3)SNS중독경향성	.36***	.25***	.17**	.35***	.30***	.28***	.30***	.31***	.30***					
(3-1)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30***	.26***	.11	.26***	.22***	.25***	.25***	.23***	.24***	.92***				
(3-2)몰입 및 내성	.36***	.26***	.22**	.31***	.28***	.27***	.24***	.33***	.34***	.91***	.81***			
(3-3)부정정서의 회피	.32***	.19**	.11	.35***	.29***	.24***	.26***	.26***	.21**	.88***	.69***	.72***		
(3-4)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62***	.32***	.83***	.44***	.44***	.27***	.17**	.62***	.54***	.24***	.20**	.27***	.17***	
M	126.25	25.60	28.91	22.15	27.23	22.45	16.75	23.55	23.90	44.10	12.61	14.39	8.78	15.26
(SD)	(18.51)	(4.78)	(4.76)	(4.62)	(6.36)	(4.32)	(4.16)	(4.53)	(3.40)	(12.14)	(4.40)	(3.33)	(2.98)	(2.91)

*p<.05, **p<.01, ***p<.001

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양식의 세 하위요인인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이 매개하는 모형이다[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표 2], 내현적 자기애는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20$, $p=.019$), 분노표출($\beta=.06$, $p<.001$), 분노억제($\beta=.21$, $p<.001$) 및 분노조절($\beta=.14$, $p<.001$)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표현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하위요인 중 분노표출만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eta=.66$, $p<.001$), 분노억제($\beta=-.13$, n.s.)와 분노조절($\beta=.21$, n.s.)은 SNS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양식은 SNS중독경향성을 18.0% 설명하였으며($R^2=.180$, $F=13.53$, $p<.001$),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분석한 결과 1.08-4.4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출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부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표 4], 분노표출의 매개효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95% CI: .014~.077),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경로계수와 함께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2.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252)

경로	β	SE	t	p
내현적 자기애 → 분노표출	.06	.01	4.13	<.001
내현적 자기애 → 분노억제	.21	.01	24.30	<.001
내현적 자기애 → 분노조절	.14	.01	19.44	<.001
분노표출 → SNS중독경향성	.66	.17	3.82	<.001
분노억제 → SNS중독경향성	-.13	.28	-.47	.642
분노조절 → SNS중독경향성	.21	.32	.64	.526
내현적 자기애 → SNS중독경향성	.20	.08	2.39	.019

$R^2=.180$, Adj. $R^2=.166$, $F=13.5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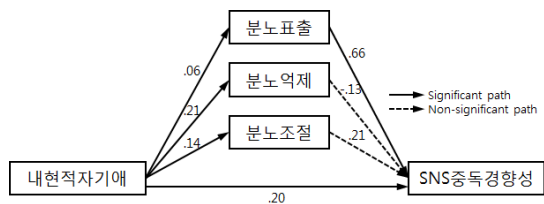


그림 1.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에도 매우 강한 수준의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SNS중독경향성과의 상관관계도 유의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모형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였다. 그

래서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Preacher와 Hayes(2008)의 방법으로 추가로 분석한 후 [표 3]에 제시하였고, 매개효과와 붓스트래핑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표 2]와 동일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로계수만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경로계수

(N=252)

경로	β	SE	t	p	
분노표출	.21	.07	3.14	.002	
분노억제	→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12	.11	-1.10	.273
분노조절	→ 몰입 및 내성	.05	.12	.41	.680
내현적 자기애	→	.08	.03	2.39	.018
R ² =.124, Adj. R ² =.110, F=8.73, p<.001					
분노표출	.13	.05	2.65	.008	
분노억제	→ 부정정서의 회피	-.04	.07	-.57	.569
분노조절	→	-.06	.08	-.76	.447
내현적 자기애	→	.06	.02	2.88	.004
R ² =.164, Adj. R ² =.150, F=12.10, p<.001					
분노표출	.14	.04	3.17	.002	
분노억제	→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22	.06	3.83	<.001
분노조절	→	.14	.07	2.15	.032
내현적 자기애	→	.03	.02	1.84	.067
R ² =.423, Adj. R ² =.414, F=45.24, p<.001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서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를 종속변수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분노표출(β =.21, p =.002)만이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95% CI: .004~.026), 모형의 설명량은 12.4%로 유의하였다(R^2 =.124, F =8.73, p <.001). 몰입 및 내성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을 때, 분노표출(β =.13, p =.008)만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고(95% CI: .001~.017), 내현적 자기애가 몰입 및 내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β =.02, n.s.) 분노표출이 완전매개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량은 16.4%로 유의하였다(R^2 =.164, F =12.10, p <.001). 부정정서 회피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을 때, 분노표출(β =.14,

p =.002)만이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95% CI: .003~.017), 모형의 설명량은 14.1%로 유의하였다(R^2 =.141, F =10.12, p <.001). 마지막으로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을 때, 분노억제(β =.22, p <.001, 95% CI: .018~.076)와 분노조절(β =.14, p =.032, 95% CI: .001~.041)이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고,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β =.03, n.s.)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이 완전매개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량은 42.3%로 높게 나타났다(R^2 =.423, F =45.24, p <.001).

표 4.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붓스트래핑 분석 결과

(N=252)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Bootstrap 95% CI	
			하한값	상한값
내현적 자기애	→ 분노표출*	→ SNS중독경향성	.014	.077
	→ 분노억제	→	-.137	.090
	→ 분노조절	→	-.059	.123
내현적 자기애	→ 분노표출*	→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004	.026
	→ 분노억제	→	-.068	.024
	→ 분노조절	→	-.024	.038
내현적 자기애	→ 분노표출*	→ 몰입 및 내성	.001	.017
	→ 분노억제	→	-.025	.046
	→ 분노조절	→	.000	.050
내현적 자기애	→ 분노표출*	→ 부정정서의 회피	.003	.017
	→ 분노억제	→	-.037	.021
	→ 분노조절	→	-.036	.014
내현적 자기애	→ 분노표출	→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	-.005	.005
	→ 분노억제*	→	.018	.076
	→ 분노조절*	→	.001	.041

* p <.05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출이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노표출이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고,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은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체 척도에 대한 분석결과와는 달리 도구의 신뢰도와 측정 오차의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V. 논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 및 SNS중독경향성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특히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양식의 분노억제 및 분노조절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자신을 억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16], 스트레스 사건에 당면했을 때 분노를 표출하기 보다는 억제하는 경향이 더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갖고 있는 분노표현 양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10][34][35]. 즉, 자기애적 성향을 외부로 발산하지 못하는 내현적 자기애의 억압적 특성이 특정 분노 상황에서 표출로 나타나기 보다는 분노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분노억제와 분노조절 간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분노조절도 일차적으로 분노억제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억제 및 분노조절과 상관관계가 강한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분노표현양식이 분노표출보다는 분노억제와 관련이 깊은데, 분노표출만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므로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별로 재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내현적 자기애에 분노표출이 매개할 경우에는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의 회피와 같은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분노표출이 타인을 비난하고 보복하는 성향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고려하면[25],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이 타인 비난이나 보복과 같은 분노표출을 SNS를 이용하여 몰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애의 성향이 드러내놓고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SNS는 이러한 부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SNS의 장점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이 SNS중독으로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한 분노표출은 점점 더 강한 분노표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대학생들이 분노표출의 창구로 SNS를 몰입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일상생활장애나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노표출을 통한 매개효과모형의 설명량은 12.4%에서 16.4%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분노억제와 관련이 크다는 것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명량은 적지만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표출을 통해 SNS중독경향성의 어떠한 하위영역들에 관계가 되고, SNS중독경향성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은 내현적 자기애와 SNS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영역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분노표출과는 달리 매개효과모형의 설명량도 42.3%로 높게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잘 반영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이 분노억제의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탈출구로써 SNS를 통한 가상세계지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SNS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방법이며, 특히 분노억제의 기제는 직접적인 표출과는 달리 가상세계의 지향에 영향을 미쳐 SNS중독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노억제와 분노조절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이 분노조절을 위해 화를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과 관계가 깊은 분노억제를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노억제의 방식은 현실세계에서의 다양한 흥미를 감소시키고, SNS를 통한 가상세계에서 나름대로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SNS중독경향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에게 잘 참는 것 외에 보다 적극적인 분노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세계에

서의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 교육도 필요하다.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가? 우리는 분노를 적절히 표출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적절히 억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분노조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노조절은 외부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내부로 분노를 일차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더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억제한 분노를 적절히 해소시키지 못하면, 현실세계에서의 부적절감을 가상세계에서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간이 지나거나 가상세계의 이용에서 오는 만족감이 보상이 되면 더욱 더 심화되어, 가상세계에 몰입하지 않으면 급단현상이 나타나는 등 중독의 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분노억제와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주의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내현적 자기에 경향의 사람들이 분노를 억제하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인내심이 강하다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긍정적 환류를 형성할 수 있으나, 이를 온전히 SNS를 통해 해소할 때 중독 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사람들이 SNS중독에 빠져들지 않도록 분노표현에 대한 적절한 조절 교육이 필요하다. 김은혜와 서수균(2013)은 내현적 자기에와 부적응적 대처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이 유의하게 매개한다고 보고하여 인지-행동 치료의 개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6].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이 외적인 분노표출보다는 내적인 분노억제의 기제가 관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지-행동 치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와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기제가 내현적 자기에와 SNS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과 불일치하는 분노표출과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과 유사한 분노억제의 양식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만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모든 성인들에게 일반화하기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여러 계층에서 유사한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분노조절 및 중독과 관련하여 대학생보다 미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SNS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 진단적으로 사용할 만큼의 선행연구와 역학조사 결과가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용어의 단정적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내현적 자기에와 SNS중독경향성 사이에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개인 외적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와 더불어 여러 일반적 특성의 통제결과를 반영한 연구가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변수의 측정과 분석에 있어서 측정오차와 변수의 차원성을 고려한 구조모형 분석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분노표출 형태에 따른 연구만 진행되었으나, 대인관계적 요소와 상황변인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파악된 변인들을 바탕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이 SNS중독 경향성이 강해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에가 SNS중독경향성 및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노표출의 다양한 양식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it.co.kr/news/mediaitNewsView.php?nSeq=2552723>
- [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 계획*, 2014.
- [3] 이한석, “SNS 디지털 환경의 특성이 문화콘텐츠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정보적 참여, 감정적 애착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 문지, 제12권, 제7호, pp.336-345, 2012.
- [4] 박선영, “SNS를 통한 구전 효과가 영화 흥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40-53, 2012.
- [5] P. A. Kirschner and A. C. Karpinski, “Facebook and academic performa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6, No.6, pp.1237-1245, 2010.
- [6] D. Karaiskos, E. Tzavellas, G. Balta, and T. Paparrigopoulos, “Social Network Addiction: A new clinical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Vol.25, Sup.1, p.855, 2010.
- [7] 박용기,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社會科學研究*, 제27권, 제1호, pp.95-125, 2014.
- [8] 조성현, 서경현,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8권, 제1호, pp.239-250, 2013.
- [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 [10] 조영재, 이동훈, “남자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2권, 제4호, pp.845-866, 2013.
- [11] 권석만, 한수정,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2000.
- [12] K. S. Young,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Student British Medical Journal*, Vol.7, pp.351-352, 1999.
- [13] 김보경, *성인애착이 스마트폰 및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4] 오윤경,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5] 박미향, 김정숙, 함경애,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자아존중감이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제21권, 제2호, pp.189-206, 2014.
- [16] 강선희, 정남운,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4호, pp.969-990, 2002.
- [17] H.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 [18] P. Wink,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4, pp.590-597, 1991.
- [19] 정병완, 홍혜영, “내현적 자기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감과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7권, 제1호, pp.183-201, 2015.
- [20] 류경희, 홍혜영,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8호, pp.157-183, 2014.
- [21] Y. Amichai-Hamburger and G. Vinitzky, “Social network use and personali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6, No.6, pp.1289-1295, 2010.
- [22] J. R. Averil, “Studie Sonanger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38, No.11, pp.1145-1160, 1983.
- [23] C. D. Spielberger, S. S. Krasner, and E. P. Solomon,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s),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NY: Springer Verlag, 1988.
- [24] R. F. Baumeister and J. J. Exline, “Self-control, morality, and human streng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19, pp.29-42, 2000.
- [25] 윤경희, 배정규, 임영진, “대학생 편집성향집단과 우울성향집단의 역기능적사고, 분노사고, 분노표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9권, 제3호, pp.769-790, 2014.

- [26] 백승혜,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분노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7권, 제4호, pp.1001-1017, 2008.
- [27] 박상혁, 노윤경, 조은혜, 이동귀,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하위집단 간 대인관계문제 및 행복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제3호, pp.77-92, 2011.
- [28] 송미경, “대학생의 분노, 소외감이 알코올중독,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제36권, pp.60-83, 2013.
- [29] 진은영, 서영미, “남자 고등학생의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30-437, 2012.
- [30] 임지영, “남자중학생들의 게임중독과 분노행동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227-236, 2014.
- [31] S. Akhtar and J. A.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pp.12-20, 1982.
- [32] 이상호, 한덕웅, 전경구,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K): 대학생 집단”,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3권, 제1호, pp.18-32, 1998.
- [33] K. J. Preacher and A. F. Hayes,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0, pp.879-891, 2008.
- [34] 김시원, 박경,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와 데이트폭력 가해자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0호, pp.121-141, 2012.
- [35] 백승혜, 현명호,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7권, 제4호, pp.1001-1017, 2008.
- [36] 김은혜, 서수균,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적대감 사이에서 부적응적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2권, 제3호, pp.533-548, 2013.

저 자 소 개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심리측정 · 평가, 학교심리, 건강심리

문 중 호(Jong-Ho Moon)

준회원



- 2014년 2월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문학사)
- 2014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재학
- 2014년 4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웰빙건강심리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상담심리, 건강심리, 행위중독